



5면

전주 대변혁 '시동'... 국가예산대거 확보

# 전주매일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음 12월 5일) 제317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소재·부품·장비 4대 소재 전담' 다이텍연구원 분원 전북에 설립

## 탄소복합재 기업 경쟁력 높인다

전북도, 전주시·전주대  
다이텍연구원 등과 협약

가상공학센터·장비 구축  
첨단소재 기술개발 등 협력

탄소복합재 기업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연구원이 전북에 들어선다.

전북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홍성무 다이텍연구원장,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이텍연구원 전북분원 설치 및 탄소복합재 가상공학센터 기반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미래 신성장 동력에 적용 가능한 탄소복합재 가상공학 플랫폼 기반구축 및 첨단소재 분야의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 주요내용은 △탄소복합재 가상공학센터 및 장비 구축 △첨단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협력 △기업의 실용 및 장비 사용 지원 △지역인재 채용 및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실용·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후속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지역산업 활성화 협력 등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4대 소재 전담 연구기관인 다이텍연구원(대구소재) 분원을 전북에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그 의미가 크다.

전북분원은 전주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건축을 지원하여 오는 2024년 상반기에 탄소복합재 가상공학센터(지상 4층, 연면적 2776㎡ 규모)를 준공하게 된다.

### 다이텍연구원 전북분원 설치 업무협약



2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홍성무 다이텍연구원장,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이텍연구원 전북분원 설치 및 탄소복합재 가상공학센터 기반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 도지사, 홍성무 다이텍연구원장,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우범기 전주시장)

센터를 기반으로 국비 130억원 등 총 221억 원 규모로 가상공학 기반 소재·제품·검증 전주기적 토달 솔루션 제공 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공학(Virtual Engineering)이란 제품개발 시 실물을 가상모형과 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고 발생하는 정보 데이터를 통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가상작업공간 구축·가상모형 설계·가상실험·생산 실제생산)을 말한다.

탄소복합재 가상공학센터에서는 △물성DB 구축을 위한 첨단장비 활용

환경 구축 △3차원 탄소복합구조체 가상공학플랫폼 구축 △계측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완제품 성능 평가 시스템 등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해서는 설계·시제품 제작·실험결과 확인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했지만, 가상공학 플랫폼 구축으로 시제품 제조 및 개발기간 단축(30%), 비용의 획기적 절감(50% 이상) 등을 통해 국내 탄소복합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에 이미 구축된 H/W 인프라 이외에 가상공학 플랫폼 S/W 구축을 통해 탄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완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다이텍연구원 분원 설치를 계기로 국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등과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다"며 "가상공학센터가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생태계를 이끌고 기업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됨에 따라, 26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청신호' 켜졌다

### 내년 정부예산에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반영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설립에 드디어 청신호가 켜졌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정부 예산에 사관학교 설립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원이 최종 반영됐으며 사관학교 설립 사업은 향후 용역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목표, 시설 규모 선정, 총 사업비를 개략 산정하는 절차를 거쳐게 된다.

이와 관련해 26일 주제가자 간담회를 연 황인홍 군수는 "민선 7기 무주군 7대 비전에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포함하면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 이후 사전 타당성조사를 가능케 할 용역비 확보까지 꼬박 2년여가 걸렸다"며 "그간 숏하게 부딪히고 넘어셔야 했던 고비 고비에서 사관학교 설립 지지 동참 서명부터 업무협약 건의문 채택 등으로 연대해주셨던 군민여러분을 비롯해 태권도와 정·관계 인사,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사관학교는 국기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국인과 국가경쟁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력이자 무주군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할 열쇠"라며 "무주군은 앞으로 기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와 법률 제·개정에도 적극 나서서 등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와 스포츠 외교관을 양성하는 대학원대학원의 태권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2020년 10월 무주군은 사관학교 설립지지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4월에는 추진위를 가동시킨 바 있다.

이후 태권도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비롯해 사관학교 설립의 당위성과 추진 로드맵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으며 수시로 관련 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국비를 건의해왔다.

또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 의회 의장단협의회,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대한노인회전북도연합회 등과의 뜻을 함께 하면서 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20대 대선공약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7대 공약, 김관영 도지사 공약에도 반영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사관학교 설립 추진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신규 사업 억제 기조에 부딪혀 국회 심의단계까지 가아하는 처지에 직면했다가 각고 끝에 지난 23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내년도 전북도정 사자성어 '도전경성'

〈挑戰竟成〉

### 김 지사, '실패 두려워 말고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의지 담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23년 사자성어로 '도전경성(挑戰竟成)'을 선정했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비전 실현과 더불어 도민과 함께

전진·도약·웅비하는 한해가 되기 위해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가 담긴 '도전경성(挑戰竟成)'을 2023년 도정운영을 위한 사자성어로 정했다"고 말했다.

'도전경성(挑戰竟成)'은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유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의 문구에 도전의 의미를 합쳐 '도전하면 결국 성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다.

도에 따르면, 2023년은 민선8기 도정 비전 기조와 민생·혁신·실용 도정 운영 원칙에 따라 5대 목표 및 핵심전

략 실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함께 힘을 모아 성취해 나가고, 기업 유치 및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전복을 향한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속도감 있게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